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영광스런 주를 보라(찬33/새12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마상오 집사 2부/이 청 장로 3부/곽태일 장로 4부/이호민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 날 인도하시네(작곡 Mary McDonald)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Audrey Ruah Hong 홍루아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스가랴 8:1-23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베드로전서 1:3-9
- 말씀 Message .....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12) 스가랴 강해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되기까지**  
4부 ..... Rev. David Park 박성권 목사  
Fluent in Somanglish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찬399/새546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천국은 누리는 자의 것

Heaven Belongs to Those Who Enjo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르며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는 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을, 죽어서 간들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길치가 미국에서도 길치인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찾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찾지 못하고 영원히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천국을 찾아가는 길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디 있어?" "아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이들에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야" 대답하는 부모라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반은 맞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천국의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미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아" "천국은 우리 아들 딸이 있는 여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진정한 의미의 천국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천국의 예배를 맛볼 수 없다면, 결단코 천국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죽어서도 결코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지금 현실과 단절된 나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지금의 가족관계와 성도들을 알아봅니다. 하늘나라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연속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한 행위대로 심판 혹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계 20:12-13).

성도님 중의 한 분이 이혼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살면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 펜팔로 서로 일주일에 10통도 주고받으며 가끔 사진도 편지에 넣어서 받는 것으로 교제하다가 비행기 샅을 모아 미국에서 날아온 유대인 출신의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나갔던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내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인 줄 서로 알아보고 진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We know heaven as a place we go to when we die. However, one of the hymns we enjoy singing, "O hallelujah, yes, 'tis heaven. 'Tis heaven to know my sins for-given; On land or sea, what matters where? Where Jesus is, 'tis Heaven there." praises of heaven that we enjoy in our present place. This is what I would say, "Unless you can enjoy heaven in your present place, you cannot go to heaven when you die." That is because, even if you would go to heaven, you cannot enjoy what you have not experienced." If you are directionally challenged and often get lost driving in Korea, you would also get lost driving in America. As such, if you could not find heaven on earth, how are you going to find heaven in another world, you may be eternally searching?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is "Am I enjoying heaven right now?" Another words, do you currently have your eyes set on direction to heaven. Growing up, young children ask their mom and dad, "Mom, where is heaven?" "Dad, how do you go to heaven?" It would give parents much regret if the answer to their children is "heaven is a place you go to when you die". You may claim that it's at least half true. But, if you can't enjoy heaven in present time, you can't enjoy heaven in the future. Parents who can answer "Heaven is like our home" "Heaven is here where my sons and daughters are-" are heavenly teachers in the true sense.

As I have always stressed to church congregation, if you can't taste heavenly worship in today's worship, the truth is you cannot worship in heaven. To that extent, if you cannot enjoy heavenly joy and happiness in your life today, there is no heaven even after death. Bible does not teach us that the world of peace is not separate from the current situation. We will see our family members and church members when we go to heaven. Heavenly Kingdom and the place that I live in now are in continuum. Therefore, when we go to heaven, we will be judged, or rewarded according to our actions in this place (Rev 20:12-13).

One of our church members came for a marriage counseling. Living in Korea and U.S. during the time when there was no internet, their relationship was built on exchanging over 10 letters a week and sending occasional pictures as pen pals. They met for the first time when her future husband of Jewish descent saved up enough for an airfare and flew over to Korea from U.S., and they got married. She could not hide her tears when she talked about how she felt when she went to meet her husband at Gimpo Airport. It's unfortunate that I am currently counseling on divorce, but heaven that we will go to when we die belongs to those who can enjoy heaven today. Only those who live in this world with the hearts of newly married bride and groom going on a honeymoon will recognize their wife and husband in heaven. They will truly enjoy Heavenly Kingdom.

주일설교시리즈 **스가랴 강해**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되기까지

## (속 8:1-23)

1. 성도들의 삶은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말론적 삶(eschatological life)' 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쉽게 내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1-3절)
  
2.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이 예고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4-5절, 참고/렘 5:1, 30:18-22)
  
3.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멸망 받은 자가 '눈 떠 보니 살아 있더라' 식이 은혜가 아닙니다. 살리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나요?(9-17절, 참고/ 학 2:1-5)
  
4. 뻔얼에서 올라온 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19, 23절)
  
5.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11번 반복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에 금식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약속을 믿고, 축제도 겸하는 삶의 예를 나누어 봅시다.(마 9:15, 막 2:18-22, 참고/ 고전 13:12)

적용하기



사역 스케치 - 헵시바 일천

# 1000명의 기도용사가 차기까지



7월의 첫날, 일찍 해가 떠서 밝은 토요일 새벽 6시에 헵시바 '일천'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명이 모여 선교 사님과 선교지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뜻의 헵시바 1000에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목회진의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글 골짜기 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리'라는 가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언 1장 1-7절을 본문으로 '지식이 예수를 통과할 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철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이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명철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훈계와 근신을 통해 나의 고집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3절), 인생의 해석되지 않는 고통들이 말씀을 통과하며 그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돋보기로 빛이 모이듯이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

는 방법임(7절)을 알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선교지를 향한 기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T국에 계신 장과장, 주열매 선교사님과 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선교지의 근황과 기도 제목들을 직접 전해 들 수 있었습니다. ① 6명 이상 이동이 가능한 큰 차량 필요 ②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회 건물로 이전하기를 ③ 2023년 한 해 목장 모임 리더십들이 더 세워지고 지속적인 목장 모임의 확장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길 등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는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로 동역하는 것임을 뜨겁게 느끼며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과 셀 식구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리라 도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델뉴스팀



## 베델콰이어 사역

### 1. 베델콰이어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베델콰이어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1, 2, 3부 성가대를 하나로 통합하여 베델콰이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일 첫 예배인 1부 예배를 섬기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 2. 어떻게 사역이 이뤄지고 있나요?

베델콰이어는 지휘하시는 목사님과 반주자와 90여 명의 대원이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찬양 채플에 모여 함께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발성 연습과 더불어 주일 예배 때에 올려드릴 찬송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1부 예배 1시간 전인 6시에 모여 예배에 드릴 찬송을 연습합니다. 무엇보다 가사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찬양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 3.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성도들께 은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음이 감사의 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성금요일 특별 뮤지컬은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아 힘들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 4.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희 베델콰이어의 찬양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더욱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베델콰이어가 꼭 차도록 더 많은 성도님께서 동참하여 더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2, 3부에 찬양으로 섬기셨던 성도님들

께서도 함께 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새벽바람을 뚫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하는 저희 베델콰이어 대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 있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대원 모두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베델콰이어 대원을 수시로 모집하니 함께 찬양으로 섬기시길 소망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오은옥 권사 (714)615-7096



선교-우간다

# 우간다 부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서는 기도하던 중, 한 달 전 K국 선교로 피로가 풀리지 않은 저에게 우간다 시골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선교사는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꼬박 이를 걸려 도착한 우간다 부시아는 상상을 넘어선 오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발이 없었고, 입은 옷은 걸레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간증과 베델타운에서 만난 장애인들의 맑은 눈빛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막막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집을 짓게 하였고, 이곳에서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짓는 봉사와 의료, 안경사역을 기쁨으로 하게 하였고, 새벽 큐티모임과 저녁모임이 부흥회가 되게 하였고, 매일 우간다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가진 것의 부족함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베델교인의 후원으로 완공된 베델타운이 부시아 뿐만 아니라 옆 지역인 나마이고에서도 더 많이 세워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 지은 117번째 집처럼 앞으로 200, 300번째 집이 지어지기를, 두 선교사의 우간다에 대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종선 집사

지난 선교대회에서 유달리 뜨거운 열정의 섬김으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우간다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들 그리고 기도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위해 세 대의 휠체어, 워커와 자전거를 후원받았으나 예상치 못하게 운송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애인으로 변신한 팀원들이 물품들을 LA 공항에서부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장애인으로 사는 삶을 체험하는 선교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입국 절차와 세관 통과 등 어려움이 앞에 있을 때마다 더욱 기도로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발 후 32시간 만에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여 별 어려움 없이 세관을 통과한 후 모든 짐들을 안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과 기쁨의 상봉을 하였습니다. 7시간 거리에 위치한 사역지인 동쪽 케냐인근의 부시아 마을을 향한 험악한 비포장도로에 몸을 맡기며 우리팀은 이미 어두워진 밖을 내다보며 다음날부터 일 사역에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QT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시작으로 선교사님의 짜임새 있는 스케줄에 따라 하루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인 '축복의 집'을 건축할 땅을 파는 작업을 시작으로 현지 의료인과의 합동 의료사역, 안경사역, 아동사역, 부족언어로 번역된 성경책 배부와 복음 팔찌를 이용한 전도, 베델타운 헌당식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섬겼습니다. 어려운 환경 아래 생활하는 장애 형제자매들이 베델타

운을 통하여 훈련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품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거행된 베델타운 헌당식에는 지도급 인사와 지역 유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님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참석자 전원이 타운을 돌며 뜨거운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은혜 충만한 퍼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베델성도님들의 사랑의 후원으로 세워진 베델타운은 목공, 컴퓨터, 재봉, 신발 제작 등을 가르치는 직업재활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안겨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되는 협력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맞이하여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노래와 춤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그들의 얼굴 가득히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빛나는 그들의 미소에서 웃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베델타운에 있는 소수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타운 내 장애인들 모두가 수화를 배움으로써 소외당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간다의 장애인들은 수도 시설이 없으니, 우물물을 길어 먼 거리를 운반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이해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 혼신으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지지치 않을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었을 이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윤성자 권사



새가족 환영회

# 예비하신 자리에서

팬데믹에 익숙해질 무렵 2022년 1월 저희 가정은 얼바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LA 한인 타운에서만 살았던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지만 저희는 공기도 좋고 안전한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작은 소망이 있었기에 직장을 잃고 가장 힘든 시기에 LA를 떠나 얼바인으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Go Deeper 하니까 Go Higher'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델교회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여 예배만 드리며 1

년을 보냈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Always be there'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베델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편했던 저는 등록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인정하게 되니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한분 한분의 배려와 섬김이 있고, 아름다운 장식과 만찬이 마련된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 소개와 목회자분들과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거실에 있는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같이 새가족을 섬기셨던 그날의 바나바 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연약함에 회개하며 베델교회를 통해

저희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훈련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섬기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김진오 성도



일본어 예배

#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베델 안의 작은 공동체인 일본어 예배의 큰 선물인 10주년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와 찬양,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12년 전 일본인 선교에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그 당시 예수를 섬기시던 손경일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모여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예배로 부서를 정해 주시고 지원을 시작해 주신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일본인들이 한분 한

분 오시고 일본 선교를 향한 기도와 기대가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델의 작은 공동체임에도 일본어 예배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무라 장로님댁과 저희 부부, 두가정만 남을뻔한 고비도 있었고 예배의 존폐가 갈릴 정도의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본어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일본 분들 특유의 친절함 뒤면에 숨어있는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은 완고한 마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딱딱한 생고구마 같은 분들이 매 주일 손용주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중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주어진 상황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눈뜨면 아침 햇살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무심코 지나쳤던 길에 핀 들꽃도 아름

답게 보인다는 간증을 합니다. 삶의 중심이 본인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주 작고 연약할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얼바인에만 대략 만여 명, 오렌지 카운티에 3만여 명 되는 일본 분이 계시고 일본에는 대략 1억 2,500만 인구에 크리스천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베델 일본어 예배가 우리 가까이 얼바인에 살고 계신 일본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목사님께서 영육이 강건하고 지치지 않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기독교의 불모지인 일본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나 고바야시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구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h)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경연 전도사
-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영어양육/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현대 사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론들을 전통 있는 신학교 교수님과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성경적으로 건강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장애 속에 깃든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섭리를 밝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가 각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명한 강사님의 깊은 연구와 사역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주제: 장애인 신학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 ▶ 일시 및 강의 스케줄:
  - 7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9시 30분
    - 강의 1: 성경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I (이재서 교수)
    - 강의 2: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의 장애인 (정승원 교수)
  - 7월 15일(토) 오전 6시-오후12시
    - 강의 3: 성경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II (이재서 교수)
    - 강의 4: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장애인 사역 (장영준 목사)
    - 강의 5: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 선교 (김정기 목사)
    - 강의 6: 지적 장애인의 구원은 가능한가? (정승원 교수)
    - Q&A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 ▶ 강사: 이재서 교수(총신 교수/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총재)  
정승원 교수(총신 교수/부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이사)  
김정기 목사(현 북가주 밀알선교단 단장)  
장영준 목사(현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 미주 밀알선교단 부총장장)

▶ 문의: 조태현 목사 (949)431-844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월)	7/16:	①부-박관수	②부-김건성	③부-권조원	④부-정재영
	7/23:	①부-박성규	②부-김도석	③부-김근수	④부-채은진
	7/30:	①부-박영선	②부-김병인	③부-김문경	④부-김영재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8월) | 7/15: 김정범 7/22: 김정욱 7/29: 김종곤 8/5: 김진원

강단꽃(7월) | 7/9: 김성희, 이 청 7/16: 김창남, 정민주 7/23: 서진하 7/30: 류재영, 이태형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윤현돈(혈액과),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과), 간호사-이정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예배** 매주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드러지는 베델수요 예배가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러집니다. 이번 주는 정승락 목사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시즌 2 남은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장애인 신학-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 맛있는 식사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부 속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7면 참고)  
 일시: 7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2 강좌)  
 7월 15일(토) 오전 6시-오후 12시 (4 강좌 및 Q&A)

◆ **헵시바 일천 - 이번주는 신학강좌로** 선교의 대상은 도처에 어디서나 있습니다. 육신의 불편함 속에서 놓여져 있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6시, 본당

◆ **아기학교 가을 학기 개강 안내** 올 가을 학기 아기학교 등록이 7월 16일 (주일)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시작하며 40명 정원(선착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8월 24일-11월 16일(13주간) 매주 목요일  
 등록 대상: 15-48개월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 뜨거운 여름,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신나는 체험 활동도하는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펼쳐집니다. 캠프 기간 동안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7월 18일(화)부터 열리는 소망부 VBS에 자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Ignite'**  
 기간: 8월 10(목)-12일(토)  
 장소: 베델 갈릴리 수양관  
 등록 방법/회비: CIM 단체 카톡방 구글 링크, \$120  
 문의: 장세인 팀장(949)910-1670, 이형석 전도사(714)944-8339

◆ **BYM 영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Overflow'**  
 기간: 8월 7(월)-10일(목)  
 장소: Forest Home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튀르키예 지진현장 구호 단기팀 모집** 국제적인 긴급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최: SWM 실크웨이브 / 프로젝트 명칭 CES)  
 선교 기간: 9월 11일(월)-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교회에서 소정의 경비가 지원 됩니다.  
 등록처: 본당 앞 코트야드, 교회 홈페이지 (7월 3째주까지 모집합니다)  
 문의: 이석희 장로 (949) 697-7606

◆ **기도해 주세요**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파송기도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0일(월)-7월 13일(목)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고 학생들이 비전을 꿈꾸는 컨퍼런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몽골 단기선교가 7월 2일(월)-7월 10일(월)까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9일) 3부 예배에 홍정환/송민경 성도의 딸 홍루아(Audrey Ruah Hong)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조승호 장로님(조귀자 권사의 남편, 지지영 권사의 부친/지종필 집사의 장인)께서 7월 1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배갑순 권사님(김재호 집사의 모친, 김안젤라 집사의 시모)께서 7월 4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주일설교시리즈 Zechariah Series

**RETURN & REBUILD (12)**

Sunday Worship Sermon Note

---

**Until Fasting Turns into Feast of Joy**  
(Zech 8:1–23)

Speaker: Rev. Bryan Kim

1. It is said that a Christian's life today is based on belief in the promise. The theological expression of this is "eschatological life." How would you change this to an easier expression in your own words? (v. 1-3)
  
2.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has been foretold previously. But, in today's passages what promise is provided for the city? (v.4-5, Ref: Jer 5:1, 30:18-22)
  
3. Grace of God is given to us freely even if we don't deserve it. But grace is not like a case of someone who is destroyed 'but found himself living upon opening his eyes.' Instead, God's promise of life is based on our obedience. In today's verses, what obedience is God requiring? (v. 9-17, Ref: Hag 2:1-5)
  
4. What is God's answer to the question from those who came from Bethel? (v.19, 23)
  
5. In today's verses, the phrase "Lord Almighty" is repeated 11 times. What meaning does the word 'Lord' suggest? These days we face many challenges that may necessitate fasting. But, let's discuss how we can face them with joy in our hearts, trusting in the promise. (Matt 9:15, Mark 2:18-22, Ref: 1 Cor 13:12)

Apply to Life

